Hallelujah News

할렐루야

통권 587호

10

2018

2018 표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막 12:30-31)

Hallelujah 할렐루야교회
Hallelujah Community Church

587호 /2018. 10

권두언

섬기는 기쁨

여은구 안수집사(신문팀장)

2018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일이다. 500주년이었던 작년 세계 기독교계에서는 이날을 기념하며 되새기고자 많은 이벤트와 학술대회, 행사들이 이어졌다. 특히 루터와 칼빈은 삶과 철학, 신학 등 개신교의 1세대, 2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칼빈주의 5대 교리(TULIP)는 이것을 정리해준다. 1) 전적 타락(Total depravity) 2) 무조건적인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3) 제한적 속죄(Limited atonement) 4)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5)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전공필수 과목으로 3역학을 손꼽을 수 있다. 고체역학, 유체역학, 열역학이 그것인데 이 과목은 기계공학도가 전문가적인 소양을 쌓는데 기초가 된다. 이처럼 기독교인으로 전공필수 과목이라고 한다면 조직신학(성경론, 신론, 인간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신학교에 다니는 목회자만 공부하고 평신도는 설교만 잘 듣고, Q.T.만 잘 하고, 사랑방 모임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성도를 향한 주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 남태평양 피지에서 교인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타작마당이라는 의식을 행하는 교회의 목사가 구속되는 기사가 나왔고 심층 취재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면서 그 교회의 외면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사이비 이단교회였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제도권의 기존교회를 다니던 일반성도들이 포섭되어 이단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들이 추종하는 교주도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고 하니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검증되지 않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은 무척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필수훈련코스로 새가족반(4주), 새생명반(24주), 새소명반(16주)이 있으며, 매 학기 성경대학에 8개 이상의 강좌가 개설되고, 성장훈련, 기도훈련, 전도훈련, 선교훈련, 치유훈련 등의 강좌가 개설되어 선택할 수 있다. 성도로서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8개 공동체(뉴젠, 뉴웨이브, 뉴시즌, 복지, 선교, 양육, 예배, 치유)에서 62개 팀이 운영되고 있다. 각 팀별로 내년 봉사자 모집을 10월~11월에 진행하고 있으니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권면한다. 섬기는 것이 훈련이고 기쁨이다.

할렐루야교회
창립 1980. 11. 16

<표지>

Hallelujah News 할렐루야신문사
1987년 5월 10일 창간
발행일 2018. 10. 4
우)135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68
전화 031-780-9583 **간사** 010-6416-7030
e-mail news@hcc.or.kr

발행인 김승욱
지도목사 서계원
담당장로 정영원
팀장 여은구
총무 마준호 회계 이은경 서기 심희수
편집간사 지현아 디자인간사 김효진
신문위원 김원순 노신영 류의주 안주미
윤성승 이영림 이욱 이춘희
진주희 최은주 한정훈 황승국
교정 김학주
10월호 담당 김원순

사진 사진팀 박종각 유성욱 지준정 진형식

할렐루야교회 신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2018.10

CONTENTS

권두언	섬기는 기쁨	02
말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04
특집	2018년 할렐루야교회 사역조직 소개	06
	루야캘리	07
특별기획	식당봉사의 수고와 기쁨	08
	나는 행복합니다 / 할렐루야 만평	09
	나의 삶은 보수공사 중 / 나눔팀 사역	10
간증	보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1
특강	내 꿈을 찾아서 - 나는 크리스천 치과의사입니다	12
환경	플라스틱으로 인해 정말 불편해졌다	13
연재	신약 한눈에 보기(2)	14
	Q & A	15
특별취재	2018 아시아 선교 컨퍼런스	16
소개	할렐루야도서관을 소개합니다	18
특강	성공과 사명	19
뉴젠	어와나 개강캠프 - 승리하는 사랑!	20
사랑방 소개	강남1사랑방을 소개합니다	21
뉴웨이브	뉴웨이브 스쿨을 개강하며	22
예배하는 우리집	55번째 가정 / 이달의 추천도서	24
마더와이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와의 일대일 데이트	25
파랑새광장	할렐루야 소식	26
특집	성경퍼즐을 출제하면서 / 예수님의 그림책	28
성경퀴즈	십자퍼즐	29
새가족	할렐루야 새가족	30
아트에세이	오늘도 괜찮아	31

할렐루야교회는

☐ **존재 목적(Mission Statement)**

할렐루야교회는 예수그리스도를 드높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
(We exist to glorify God by exalting Jesus Christ.)

☐ **비전 (Vision)**

'평신도를 일으키는 교회'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사회와 나라를 축복하는 교회'
'다음 세대와 함께 선교하는 교회'

홈페이지 www.hcc.or.kr **전화** 031) 780-9500

제8계명 :

도둑질하지 말라

신명기 5:19

김승욱 담임목사

하나님께선 제8계명을 통해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앞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어두운 세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강한 진을 파하고 무너뜨려야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우상 문화 중 도둑질하는 습성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깨어 있어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악한 마귀를 가리켜 도둑이라고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과는 완전히 대조되게 사탄은 도둑질하는 자로 옵니다. 그 도둑질하는 모습과 함께 죽이고 멸망시키는 결과를 갖고 온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날의 살인 사건을 보면 많은 경우가 도둑질로 인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사이 미국과 멕시코 경계선은 킬링필드로 변해 있습니다. LA에 살면서 많은 멕시칸 이웃들을 알았는데, 하나같이 오늘날 멕시코가 너무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마약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마약을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을 빼앗기 위한 싸움과 그 마약으로 생기는 엄청난 수입을 서로 차지하고 도둑질하는 모습에서 무시무시한 살인과 멸망의 모습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전하길 원치 않습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우리가 모두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을 잘 보면 도둑질하게 되는 원인이 보이고, 이 모습을 뿌리 뽑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인가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게 되는
원인은 게으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손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춘 자가 일하지 않고 얻어먹으려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일하지 않고 쉽게 돈 벌 궁리를 하며 살게 될 때 그 사회는 게으름으로 병들게 되고, 이것이 발전해서 도둑질하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궁핍하고 범죄율이 높은 곳은 도시에 있는 게토(ghetto)입니다. 그런데 그 게토 안에 가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것은 도시마다 잘 갖춰져 있는 복지정책(welfare system)을 남용하여 사람들이 복지기금만을 타 먹고 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지원은 계속 받지만, 자신들의 서비스로 그 사회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그런 곳들은 그 기저에 일하지 않는 게으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은 그 사회를 문란과 궁핍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들이 도둑질하며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일

어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는 게으름이 있을 때 도둑질하는 모습이 함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게으름의 모습이 보이고, 무엇으로 인해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일까요? 저는 도박과 부동산 투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도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사회나 이 도박이라는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도박 도시인 라스베이거스(Las Vegas)에서 멀지 않은 LA에 한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도박의 심각함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날리고, 가정을 파탄 내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으면서도 여기에 묶이는 걸 봤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도박이 마약보다 무섭다고 합니다. 사람의 이성을 잃게 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현재 도박에 빠져 계시다면 그 습성이 완악해지기 전에 당장 그만두십시오. 이미 너무 많이 빠지셨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치유를 받으십시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동산 투기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투기 역시 우리가 손으로 일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어느 정도의 투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가 극심해서 투기가 횡행(橫行)할 때에 사회는 병들고 마는 것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자원과 서비스로 인해 일어나는 것인데, 똑같은 자원을 갖고 다른 아무런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점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거품은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2008년에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이 절망에 빠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이 모아둔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반값이 되면서 어쩔 줄 모르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부동산 거품에 휩쓸린 우리의 욕심과 게으름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회개케 하시는 것을 깨닫고, 성도들과 함께 얼마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투기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죄악의
해결책은 베푸는 삶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도둑질하는 모습의 뿌리를 뽑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며 돌보는 사역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가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10절을 보면,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거두다가 떨어진 이삭은 다시 줍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함께 하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놔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의 시스템은 절대 완전하지 않을 줄 아셨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충분하게 얻지 못할 자들,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자들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이 자원해서 나누고 베풀며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또한 무엇인지 이사야 58장 6~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의미의 금식은, 이사야 말씀대로 압제당한 자들의 멍에를 풀어주고 주린 자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그들과 함께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8계명에서 지적하고 있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질로도 이웃을 도울 수 있고, 자원봉사로도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제8계명의 말씀 앞에서 함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도둑질의 원인이 되는 게으름에서 나올 것을 결단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도박과 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의 힘을 받아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려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할렐루야교회 사역조직 소개

정리 여은구 안수집사(신문팀장)

할렐루야교회에는 8개의 큰 사역공동체가 있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62개의 사역팀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1900명이 봉사를 하고 있으며 약 200~300명 정도의 추가 인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공동체**

(10개팀, 700명 사역 중, 충원 인원 100명)

예배공동체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 감사의 기도와 찬송이 넘치는 예배, 주님의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예배 / 경배와 찬양 / 찬양 / 주차안내 / 미디어(방송/신문사) / 외국어예배(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러시아어)

예수님의 생명을 전파하는 **선교공동체**

(12개팀, 200명 사역 중, 충원 인원 20명)

선교공동체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와 증인되는 삶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국내(국내선교 / 군선교) / 해외 (해외선교 / 디아스포라) / 북한(북한선교 / 통일비전) / 전도(전도 / 전도폭발) / 문화(문화선교 / 예술선교) / 오늘의 양식 / 변혁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양육공동체**

(6개팀, 100명 사역 중, 충원 인원 10명)

양육공동체는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을 돌보며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영성을 키우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성경대학 / 확신반 / 세례양육 / 도서관 / 새가족 / 섬김안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치유공동체**

(6개팀, 130명 사역 중, 충원 인원 10명)

치유공동체는 영적·육적,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상처의 치유를 통하여 교회 성도와 이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지체로 회복되도록 섬기는 사역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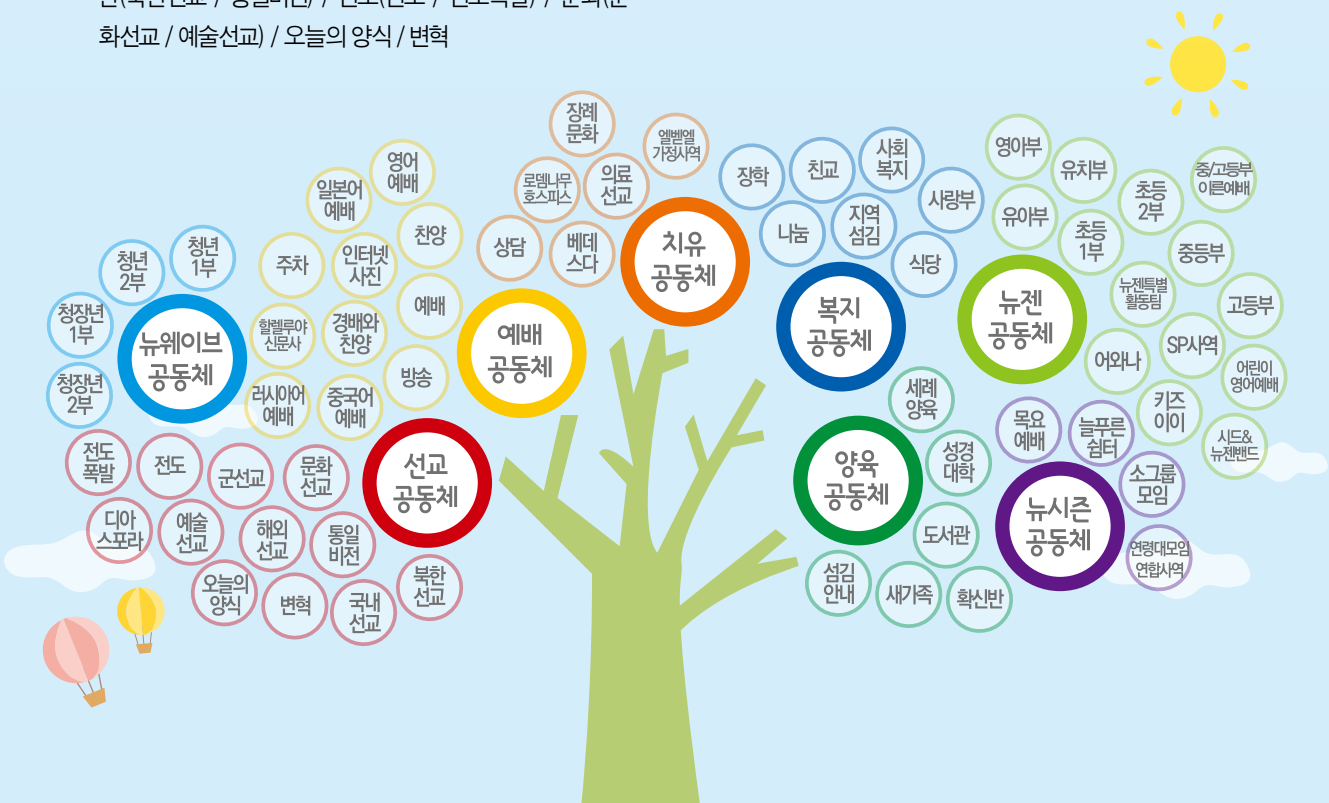
상담(상담 / 로뎀나무 호스피스) / 장례문화 / 의료(의료선교 / 베데스다(수지침 등) / 가정사역(엘벧엘 가정사역)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복지공동체**

(7개팀, 200명 사역 중, 충원 인원 50명)

복지공동체는 교회의 미래인 차세대 교육과 장년의 신앙 성장을 이뤄가도록 섬기기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나눔(나눔 / 장학) / 사회복지 / 지역섬김 / 봉사(식당) / 친교(카페 / 매점 / 서점 / 결혼예식 / 스포츠) / 사랑부(장애인 봉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새로운 세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뉴젠공동체**

(13개팀, 500명 사역 중, 충원 인원 50명)

뉴젠(NEWGEN-New Generation)공동체는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새로운 세대로 양육하는 일이 교회와 가정에서 한결같이 잘 이루어지도록 부모님과 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공동체입니다.

영아부 (0~3세) / 유아부 (4~5세) / 유치부 (6~7세) / 초등1부 (1~3학년) / 초등2부 (4~6학년) / 어와나(Awana) / 어린이 전도폭발(Kid's EE) / 시드(Seed) / 중등부 / 고등부 / 중고등부 이른 예배 / 뉴젠 특별활동 / S.P

청년과 청장년을 차세대 리더십으로 성장시키는 **뉴웨이브공동체**

(4개팀, 30명 사역 중, 충원 인원 10명)

뉴웨이브(New Wave)공동체는 주일 4부 예배를 중심으로 20대부터 40대의 미혼 청년과 기혼 청장년 세대가 함께 모인 할렐루야교회의 다음 세대 공동체입니다. 작게는 할렐루야교회의 차세대 리더십으로 준비되고 크게는 한국 교회와 북한 교회를 넘어 디아스포라 교회와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기를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청년1부 / 청년2부 / 청장년1부 / 청장년2부

예수님의 생명을 전파하는 **뉴시즌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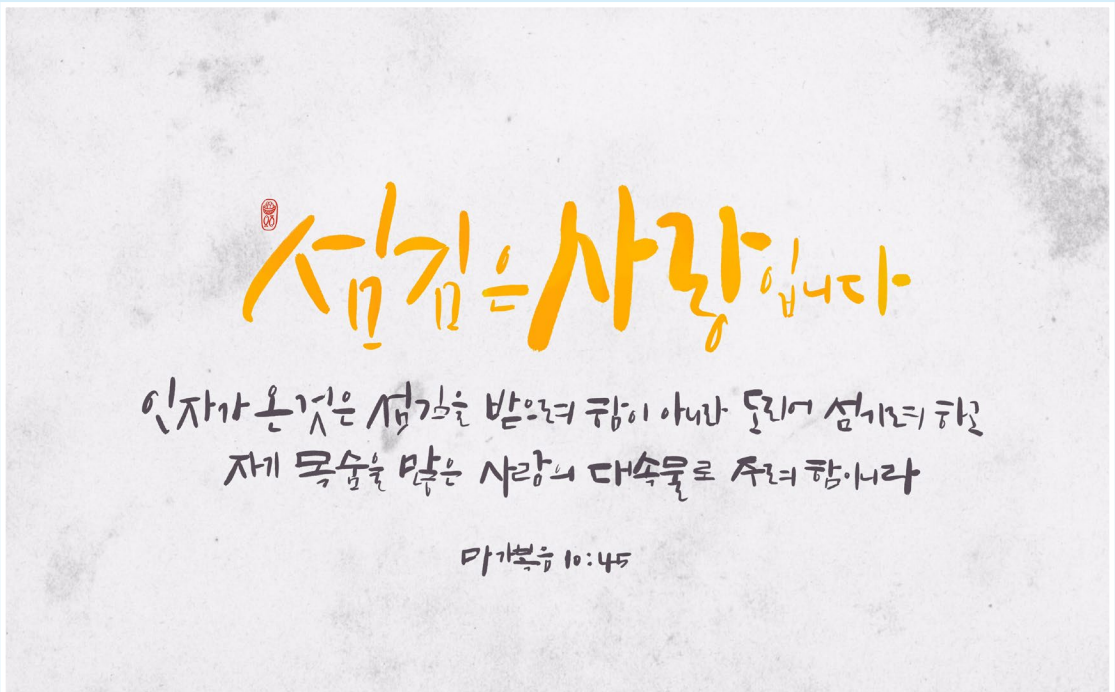
(4개팀, 30명 사역 중, 충원 인원 10명)

뉴시즌(New Season)공동체는 고령화 시대에 예수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돕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른 신앙, 건전한 정신 그리고 강건한 육체를 함양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도우며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늘푸른쉼터 / 목요예배 / 소그룹모임 / 연령대모임 연합사역

할렐루야교회는 교육훈련을 통해 성장한 성도들이 헌신할 곳을 찾도록 돕는 섬김안내팀이 있습니다. '사역'이란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깝게는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교회사역을 비롯하여 인근 지역의 커뮤니티에서 봉사하는 지역사회봉사,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도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리는 세계선교 등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선 교회내의 사역에 참여하여 교우들과 교제도 해보세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정착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위치 235호(2층 대식당 입구)
운영 시간 주일 1부 예배 후~3부 예배 후
상담 방문 또는 섬김안내센터(hccsvc@naver.com)로 요청



루야캘리 이욱 형제(신문위원)

식당봉사의 수고와 기쁨

김용태 성도
(10교구)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남으로 이사온 지 1년이 지난 후 할렐루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4년이 지난 뒤에야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마음의 안식과 위안을 받고자 하는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간의 교제, 교회의 사역(봉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배시간을 통해 주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28)*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예배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을 바꿔 놓았습니다. 내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배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차봉사, 교사봉사, 식당봉사, 안내봉사, 찬양봉사 등 예배를 위한 많은 봉사의 손길들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시간 성가대 찬양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성가대의 빈자리가 계속해서 제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몸 된 교회를 위해 필요한 자리로 가서 섬기라'**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셨습니다. 거부하기 힘들었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참 기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사역 중의 하나가 식당봉사였습니다. 벌써 식당봉사를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주일날 식당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 속에서 얻는 기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국수를 대접하는 과정은 섬김과 기쁨의 의미를 몸소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식당봉사 일을 사랑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권사님들의 따뜻한 손길이 국수 맛의 깊이를 더해주십니다. 면을 삶고 찬물로 헹구고 그릇에 담아 육수국물에 어우러져 나오는 국수는 성도님들을 향한 봉사자의 수고가 묻어 있습니다. 또한 설거지와 식기세척을 통해 마무리하는 과정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일하면서 얻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전히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자들의 손길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각 사역마다 빈자리는 늘어나고 봉사자의 연령은 고령화되어 가는 요즘 하나님께서는 섬기고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체들을 향한 섬김의 여정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인지 직접 느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할렐루야교회 성도 모두가 함께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가을 문턱에서 해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소옥 권사
(7교구)

33년이라는 전통을 이어온 할렐루야 오케스트라의 한 단원이 되어 주일마다 기쁨으로 연주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단장으로서 특별히 하는 일은 많지 않지만 아침 일찍부터 크고 작은 악기를 들고 저마다의 환경 속에서 달려오는 모습만 보아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는 믿음의 모습은 늘 설레게 합니다.

흔히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음악을 포기하고, 전공을 해도 연주할 수 있는 무대의 폭도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2부, 3부 2번의 예배에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연주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이 찬양의 연주가 지속될 수 있게 교회에서 보여준 큰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2017년 성탄절 칸타타

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연혁

1985년 6월 30일 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창단 예배
2005년 10월 2일 임마누엘 오케스트라 창단 1부 예배
2011년 2부, 3부 오케스트라 명칭 개정
2013년 할렐루야 오케스트라 명칭 개정
현재 총 단원 45명 활동 중

할렐루야 만평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하는 우리들!!? - 나는 어디?

글 • 그림 마준호 집사(신문위원)

나의 삶은 보수공사 중

강유성 집사
(6교구)

내 신앙의 시작은 교회봉사와 성도 섬김으로 시작된 신앙훈련이었다. '무익한 종을 세우기' 위한 피택자 각종 교육과정은 미자립교회 선교와 주차봉사, 타 교회탐방 등등... 모든 것들이 나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 강의로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주었고 안수집사의 중보기도 사역과 성구암송 체크,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 지속되는 피택자 훈련과 소그룹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일꾼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다.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갖게 되고 몸 된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그릇이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가? 그릇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그릇마다 주권적으로 재능과 달란트를 맡기신다. 재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받은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상급이 없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릇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담을 수 없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전제 조건은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릇은 엉망인데 채워달라고만 할 수는 없다. '몸은 삶이다' 따라서 자기 몸, 자기 삶을 온전히 관리함으로써 그릇을 온전하게 준비해 놓아야 한다. 지금, 내 그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담을 만한가? 내 그릇은 새고 있지 않은가? 신앙의 삶이란 거룩한 영을 지키는 거룩한 싸움을 하는 삶이다. 그 거룩한 싸움에는 영의 싸움도 있지만 결국 몸을 관리하는 싸움이다. 날씨가 좋은 이 가을날에 내 몸이 예배에 와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몸을 갖다 놓았으니까. 마음이 다른 곳을 향했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다. 신앙의 싸움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히 많을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없다. 신앙의 싸움은 결국 몸을 관리하는 싸움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나눔팀 사역

고영하 안수집사(8교구)

왼쪽부터 김동환 안수집사, 고영하 안수집사, 백재훈 집사, 이효경 집사

복지공동체 안에서 나눔팀은 교회 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금전적으로 돕는 나눔성금 사역과 성도들이 기부해준 성미와 일부 구입한 쌀로 돕는 나눔성미 사역이 주된 사역인데, 여기에 2년 전부터 새로 시작된 사랑의 기금으로는 나눔성금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가정들을 심사하여 돕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해오고 있다. 나눔성금 지원 대상자들을 심사하며 드는 마음은 우리 주위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다는 것과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도 다 도울 수 없는 한계 같은 것을 볼 때 마음이 많이 무겁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공정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나눔 사역을 실천하는 것이 사역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덕목이다. 가슴 아픈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지경을 속히 벗어나게 되길 기도한다.

보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송종섭 은퇴 안수집사(6교구)

기타를 치고 있는 보바와 러시아어 예배 성도들

5월이 거의 끝날 무렵 한쪽 다리에 의족을 한 청년 보바가 할렐루야교회 러시아어 예배에 찾아 왔습니다. 자기와 같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추천해 달라는 그에게 의족은 어디에서 했는지 묻자 우즈베키스탄 뉴호프 재활 재단에서 했고 그곳은 본인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동안 봉사하였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휠라인(Wheel Line) 사장에게 취직을 부탁하였더니 인터뷰를 해 보겠다고 하여 같이 갔습니다. 당장 6월 1일부터 일하라고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분은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다 절단하고 휠체어에 의지하여 생활하며 주문형 휠체어를 주문생산(주로 운동선수용)하는 소규모 업체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날로 모란에 숙소를 정하고 입주하였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오래도록 근무하고 싶다는 보바는 한국이 좋아 평생토록 한국에서 일하다가 한국에서 죽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가볍게 들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니 진심이었습니다.

보바는 한국에서 일하시는 어머니와 같이 있기 위하여 2017년 7월 입국하였답니다. H-2(취업비자) 비자를 받고 들어 왔습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도우셨습니다. 장애인이 H-2 비자를 받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금년 5월 어머니는 간 경화가 악화되어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갔고 보바는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이 되어 저를 찾아 왔으며 가족과 친지들로부터도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이유로 외면당하는 처지였습니다.

7월 18일 보바가 쓰러져 광주병원에 있는데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기에 우리는 차병원으로 갔습니다. 지난 후 돌아보니 차병원을 택한 것도 주님의 보살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주 이상을 소비하며 어렵게 조직 검사한 결과 육종암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보바의 통장에는 단돈 91만원밖에 없었습니다. 보바는 수술할 돈도 없었고, 죽으면 화장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국립의료원, 적십자병원, 안양샘병원 등 저렴한 비용으로 수술할 곳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병원도 육종암을 수술할 수 있는 곳도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당시 추정 병원비는 약 오백만원, 항암 치료까지 고려하면 약 천만원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금전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우리는 모금하기로 하였습니다. 차병원 사회사업부에서 삼백만원을 물색하여 보겠다 하였으며 영락교회(전에 보바가 어머니와 같이 출석)에서 참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교회 김승욱 담임목사님, 권사회(김승희 회장 및 권사님들이 대부분의 헌금을 함), 복지공동체 및 독지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8월 2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반 동안 수술하였고 회복이 빨라 8월 14일 퇴원하였습니다. 8월 3일 중간 정산 통보지서를 보니 총 병원비 약 18,700,000원 중 보험공단 부담 12,300,000원 본인부담 6,400,000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단 한 달 의료 보험금을 내고 천이백삼십만원을 공제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취직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보바는 주님이 돌보시니 살겠다는 확신과 주님이 일 하신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통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숙소가 필요한데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화장실이 있는(몸이 불편한 보바에게는 필요함) 저렴한 고시텔을 발견하고 입주하였습니다. 퇴원 시 청구서를 보니 총 병원비 약 20,500,000원, 공단 부담 16,200,000원, 본인 부담 4,300,00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이미 청구한 병원비 중 본인 부담금 중 2,300,000원을 삭감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앞으로 항암치료비에서도 본인은 5%만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간 25,248,850원이 모금 되었으며 그간의 병원비 및 경비 6,833,980원을 공제하고 현재 잔금 18,414,870원이 통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항암치료 및 보바가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생활비로 충당될 예정이며 잔금이 있을 경우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소중한 곳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크리스천 치과의사 입니다

전동근 집사
(초등2부)

얼마 전 뉴젠의 '내 꿈을 찾아서'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여러 성도 분들과 나누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저는 2000년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치과의사가 되었습니다. 벌써 치과의사로서 18년의 삶을 보냈는데요.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에서부터 최근까지 돌이켜보게 되었고 크리스천 치과의사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치과의사의 진로는 다양합니다. 저는 치료를 주로 하는 개원의를 택하게 되었지만 치의학 학문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나라의 구강건강정책에 참여하는 정치인, 공무원이 될 수도 있으며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의료봉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치과 의료선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치과의사 중에는 롤모델이 될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33년간 한센인 마을에서 무료진료를 해 주신 분도 계시고 이동식 치과버스를 만들어 오지로 치과진료봉사를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뉴스마 선교사님처럼 우리나라가 전쟁직후 한참 어려울 때 미국에서 선교사로 오셔서 광주기독병원에서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치과치료뿐 아니라 영혼이 궁핍했던 이들에게 영혼까지 위로해 주셨던 분도 계십니다. 이분의 제자들이 지금은 치과 의료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많은 치과 의료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하나님의 사랑을 국내외로 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공중보건의 시절 이 단체에 속해서 '치과의사가 없는 곳에서'라는 책을 같이 번역한 적이 있는데 매우 보람된 일로 기억합니다. 그분의 제자 중 한 분이신 김중원 목사님은 중국에 선교사로 가셔서 중국 치과의사들을 훈련시키셨고 신학을 공부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과 더불어 미국에서 목회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교회에서 의료선교 활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등 크리스천 치과의사들이 믿음으로 열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할렐루야교회를 초등부 2학년 때부터 다녔는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아이들을 위한 '내 꿈을 찾아서'란 프로그램은 없었으나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핸드벨과 성가대로 봉사하는 가운데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당시 교회친구들을 통하여 저의 꿈에 관하여 선한 영향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게다가 내성적이고 인간적인 관계 맺는 것에 서툴고 자존감이 낮았었는데 교회에서 양육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조금이나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치과대학 기독학생 졸업생 모임의 대표가 되어 치과대학 학생들의 양육과 진료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모임 선후배들과 경남 함안에 가서 현지 교회와 협력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진료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조금씩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모임 후배 선교사 가정을 중앙아시아의 한 나라로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파송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가정이 현지의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믿음의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생겼습니다. 마치 뉴스마 선교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지역의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이 가정을 위해 보내는 선교사로서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초등부 아이들, 말씀 안에서 꿈을 붙들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예배와 수련회를 통하여 믿음의 씨앗이 자라 우리 교회 나아가 한국 교회의 차세대 리더들로 성장하길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해 정말 불편해졌다

김효진 자매
(신문위원)

플라스틱 소비를 거부한 이후로 생활이 매우 불편해졌다. 플라스틱을 거부하자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길을 가다 목이 마르면 가볍게 사 마시던 500ml 생수의 플라스틱이 불편해서 목이 마르면 참았다가 정수기를 찾거나 플라스틱 없이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가까운 카페를 방문해 필요를 채운다. 시장까지 가기 귀찮아 마트에서 장이라도 보려면 이미 플라스틱에 포장되어 있는 제품이 너무 많다. 시판되는 주스는 이미 포기했다. 플라스틱 포장재이거나 종이팩에 담긴 작은 크기의 음료에는 작은 플라스틱 빨대가 부착되어 있고 유리병에 든 음료조차 플라스틱 비닐 포장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의 제품을 구매하면서 얼마나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동시에 소비하고 있는 걸까?

인터넷 포털을 관심 있게 살펴보면 하루에도 몇 건의 환경관련 기사가 올라오고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플라스틱 빨대에 관한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재활용을 위해서는 세척이 필요한데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에는 세척도 어렵고 재질의 문제도 있어 그대로 버려진다는 이야기이다.

3년 전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힌 바다거북의 영상이 공개되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재활용되지 못해 버려진 플라스틱 빨대는 더 빠른 속도로 미세 플라스틱이 되거나 썩지 않은 채로 쌓이거나 해양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이다.

과연 플라스틱 빨대를 통해 음료를 모두 마시는데 얼마나의 시간이 걸릴까? 잠깐의 플라스틱 빨대가 주는 편리함으로 인해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이 희생 당해야만 하는 걸까?

미국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는 2020년까지 전 세계의 모든 매장에 플라스틱 빨대를 없앨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내의 여러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서도 빨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용기 혹은 플라스틱이 아닌 소재의 빨대 도입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국내의 한 업체에서 쌀과 타피오카로 만들어진 빨대를 개발했다는 소식 또한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버블티로 유명한 대만에서도 단계적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는 중이라고 한다. 전 세계가 플라스틱 빨대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장 손쉽게 플라스틱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다.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으면 덩달아 사용하지 않게 되는 일회용품도 있다. 바로 플라스틱 컵 뚜껑이다.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플라스틱 소비가 하나 더 줄어드는 셈이다. 물론 간혹 빨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유리, 대나무, 갈대 등 다양한 소재의 재사용 빨대가 있으니 이를 이용하면 좋다.

뉴웨이브 예배가 끝난 뒤 사랑방 모임을 위해 애니 카페 4층으로 오르는 계단 앞에 앉았다. 하나둘 모임을 위해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의 손에 들린 뚜껑을 예쁘게 덮고 정갈하게 빨대를 꽂은 음료들이 눈에 띈다. 문득 매 주일 이렇게 소비되는 빨대와 플라스틱 컵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해진다.

사랑방이 끝난 애니 카페 4층 쓰레기 수거대 위, 빈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로 가득하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쌀쌀해진 바람에 따뜻한 음료를 더 찾게 되는 요즘. 빨대와 플라스틱 컵의 소비는 잠시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줄어든 플라스틱 소비에 만족할 수는 없다. 다시 돌아올 여름을 위해 우리에게는 분명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사복음서 한눈에 보기

백명렬 목사(8교구 담당)

신약성경의 46%에 해당하는 사복음서는 33년이란 짧은 예수님의 행적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여 사마리아와 유다 지역에 걸쳐 그분의 모습과 체취, 그분의 말씀과 사역,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에 대한 자세한 묘사들을 네 개의 카메라 앵글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자서전 형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자마다 각자의 편집 목적에 따라 한 분 예수님을 네 가지 다른 전망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특징 한눈에 보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합해서 공관복음(共觀福音 the Synoptic Gospels)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세 복음서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세 복음서들의 보는 시각과 특성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미 공관복음서들이 쓰여지고 읽혀진 지 최소한 30년이 넘은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에 없는 새로운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추측연대	주 후 58-68년	주 후 55-65년	주 후 60-68년	주 후 90-95년
기록장소	안디옥/팔레스틴	로마	로마/그리스	에베소
원 독자	유대인 중심 (종교적)	로마인 중심 (실용적)	헬라인 중심 (관념적)	세계적
주제	메시아-왕	종-구속자	완전한 인간	하나님의 아들
전통적인 그리스도의 형상 (겔1:10,계4:6-8)	사자(힘,권세)	소(일, 힘)	인간(지혜, 성품)	독수리(신성,인성)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비교

주제	공관복음	요한복음
공관복음	인간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인간
관점	역사적	신학적
고유한 내용	약함(마태42%,마가7%,누가59%)	강함(92%)
지리	갈릴리 사역에 집중	유대 사역에 집중
대화 방식	공개적	비공개적
교육방법	비유	우화
교육강조점	윤리, 실제적인 가르침에 치중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치중

사복음서는 상호보완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신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훨씬 더 유익합니다.

Q&A

Q&A는 '구약 한눈에 보기'를 통하여 성도들의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 신문사 메일(news@hcc.or.kr)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답변을 하는 코너입니다.

Y 집사

성경에서 시간에 대한 언급은 4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와 사도행전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육시부터 제구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라는 내용이 공관복음서(마27:45, 막15:33, 눅23:44)에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제삼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사용했던 유대시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6시간을 더하여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죽으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빌라도의 법정에 인계된 시간을 제육시(요19:14)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시로 환산한다면 12시가 되는데 공관복음에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을 시간이라서 시간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백명렬 목사

사복음서의 시간에 관한 문제는 오늘날에 이르도록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관복음의 시간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한 시간 개념을 적용해서 6시간을 더한 시간을 오늘날의 시간으로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즉 '제구시'는 6시간을 더해서 '15시' 곧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요한복음에 언급된 시간도 유대인들이 사용한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영어역본 성경에도 요19:14절을 "it was about noon."(NIV), "It was now about noon on the day"(NL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경우는 공관복음과 달리 당시 로마인들이 사용한 로마식 개념(오늘날의 시간 개념과 동일)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신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 근거로 요19:14절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추적해 보면 목요일 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심(마26:30, 막14:26, 눅22:27, 요18:1) 금요일 해뜨기 몇 시간 전-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심(마26:47, 막14:43, 눅22:47, 요18:3) 금요일 새벽 - 안나스와 가야바의 법정(마26:57, 막14:53, 눅22:54, 요18:24) 금요일 해 뜰 때- 빌라도의 사형언도(마27:15, 막15:6, 눅23:13, 요19:14)

여기에 빌라도의 사형선고가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육시라"(요 19:14) 이 부분을 유대식으로 환산하면 정오12시가 되어서 공관복음에서 언급한 시간과 맞지 않고 오전 6시(로마식)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앞에서 사복음서 한눈에 보기에서 언급했듯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쓰여지고 읽혀진 지 최소 30년이 넘은 이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이 92%나 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시각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고 기록장소인 에베소에는 이미 로마식 시간에 익숙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므로 로마식의 시간개념을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논리로 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으러 온 시간도 낮 12시가 아니라 오후 6시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요 4:5-6)

선교지에서의 사역의 기쁨

지준정 집사(신문위원)

2018 아시아 선교 컨퍼런스가 '건강한 영성 & 건강한 선교'라는 주제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태국에서 열렸다. 할렐루야교회에서 동남부 아시아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한국에서 MK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38명이 초대 되었고 할렐루야교회에서 37명이 참석하였다.

선교사님들의 기도제목을 나누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고 '건강한 선교와 책무'에 대한 강의, 경배와 찬양, 영성집회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보였던 "Respect Buddha, it's a common sense!"(부처를 존경하세요. 상식입니다.)라는 커다란 글씨가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선교로 "Believe Jesus, it's the truth!"(예수님을 믿으세요. 진리입니다.)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며 사역의 기쁨을 들어본다.

이형민 선교사 / 태국

방콕에서 8년째 5명의 태국 스태프들, 그리고 한 가정과 함께 사역을 하고 대학교에서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한국어수업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함께 하는 시간들이 제일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학생들에게 전해지고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김하버트, 이열매 선교사 / P국

턱없이 부족한 저희들이 무슬림들을 사랑하며 섬긴다고 하지만, 이들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저희가 누리는 영적 축복이 훨씬 더 컸던 것을 고백합니다. P국에서 무슬림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추수의 현장을 목격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지난 15년을 돌이켜 보면 그리스도의 인내와 고난에 동참하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희의 믿음이 성장하였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선교사의 귀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충식, 정수정 선교사 / 인도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는 기쁨은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는 것으로 숫자를 세는 기쁨이 아닙니다. 2년 전 뉴델리에 국제교회를 세운 뒤 모이는 인원은 얼마 되지 않지만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영혼의 변화와 성장은 제가 피곤하거나 지치고 힘들어질 때에도 여전히 다시 일어나 더 가야지 결단하게 만드는 섬김의 기쁨입니다.

나눔, 천향기 선교사 / L국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기뻐하시어 L국으로 보내셨고 9년 동안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협력교회들과 기도의 동역자들도 붙여 주셨습니다. 가정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쁜 지체들을 보내 주셔서 기쁘고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타 단체와 연합하여 축구사역을 하는데 젊은 청년들이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김요엘, 김희정 선교사 / 태국

동남아시아 여러 교회들의 현지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육 및 훈련 사역을 통해 보석과 같이 귀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특권과, 그들을 돕고 섬기

는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현지인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또한 제자훈련을 돕는 일은 너무나 놀랍고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영혼들을 만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달려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중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도 저녁에 교회에 모여 어른들과 같이 신앙 훈련을 받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한 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선생님을 쳐다봅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들을 어떻게 섬겨야하는지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보냈듯이 그들을 보내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이승수, 정경하 선교사 / 인도

2008년 6월 '하루를 사랑으로 승리하자(LOVE WINS)'라는 모토를 가지고 인도에서 하루하루를 쌓아왔는데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선교지에선 젊음이 무기요, 젊음이 기쁨입니다. 이곳에서 젊은 동역자들과 뜨거운 꿈을 함께 꾸고, 원수들의 물결을 기꺼이 즐겨 타고 넘어가며, 서로를 성장시키고, 서로를 세워주며,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역을 배워가는 선교사의 삶 자체가 기쁨입니다. 2015년 인도 2기 사역을 시작하며 YWAM King's Gardens 베이스를 인도 푸네에 개척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7명의 풀타임 사역자와 6명의 파트타임 사역자가 함께 하는 역동적인 도시사역팀이 되어 5개 영역(기도센터, 빈민구제사역, 슬럼음악학교, 대학생전도훈련사역, TEE 사역)에서 활발하게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병호, 박재영 선교사 / MK사역

교육전문가로서 MK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10대의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최고의 기쁨과 보람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저는 그런 특권을 누립니다. 이것은 선교사로서 최고의 기쁨입니다.

김홍진, 김명화 선교사 / 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인도에 온 것밖에 없는데 순종하는 저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저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자손들을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지켜보는 것은 선교사의 가장 큰 특권이자 기쁨입니다. 선교지에 온 지 10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어린이 부흥회를 하는데 1,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에 약 1,800명의 어린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며 감격의 눈물이 흘렀었습니다.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길 원하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는데 '이들이 저의 보상이고 상입니다.'라는 고백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조준희, 송지영 선교사 / M국

16년 선교사로서의 삶을 돌이켜보면 '행복하다'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기 쉽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에 세상의 유혹이 적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기도하고 생각했던 대로 사역의 문이 열리지 않거나 더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기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살아가자는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셨을 때에 기쁨이 충만하셨다고 믿습니다. 저희도 K시에서 사역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영이 충만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도서관을 소개합니다

최고운 사서

할렐루야도서관은 교회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섬김의 공간으로 독서 문화 확산, 면학 분위기 조성, 건강한 신앙인으로의 성장 기능을 합니다. 교인들에게 신앙서적은 물론 다양한 일반 교양서를 구비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식뿐 아니라 지혜와 정보를 공유하며 성숙하고 균형 있는 믿음의 성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지향합니다. 또 더 나아가 지역 사회에 아름다운 전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치 교회의 작은 뜰에 심은 아름다운 정원수와도 같이 문학의 향기와 잔잔한 감동의 정서가 성도님들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하며 모든 봉사자들이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도서관은 2005년 소규모 무인 독서실 형태로 시작하여, 2014년 지금의 자리인 208호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는 신앙도서 4,464권, 아동도서 2,124권을 포함하여 약 11,400여 권의 장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중 약 80%는 기증도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분야의 신간도서를 분기별로 구입하고, 매달 회원님들의 희망도서를 추천 받아 검수를 거쳐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소장 도서는 본 교회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접속 가능하며, 직접 hcc.winbook.kr에 접속하는 것도 가능하여 집에서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열람실에는 55석의 좌석을 갖추고 있어 많은 성도님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 도서관은 인근 지역 주민에게도 열려 있으니, 평일에도 교회 도서관을 이웃들과 함께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매년 봄마다 열리는 <도서 기증 및 교환전>을 통해 성도님들이 기증해 주신 도서는 본 도서관에 비치될 뿐 아니라, 군부대교회와 국내외 여러 선교지에 보내어져 나눔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시와 평상시 기증해주신 도서는 Spirit Power 기간 동안에 열리는 <SP 도서 나눔전>을 통해 국내 여러 교회에 다시 기증되고 있습니다. 올해 <SP 도서 나눔전>에서는 39개 교회에 약 900여 권이 기증되었습니다. 깨끗한 책을 나누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가을에는 <문화 탐방>을 기획하여, 독서와 기독교 문화 체험을 통해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서관 이용안내

[이용 시간]

주일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평일 화, 수, 목, 금 오전 10시 30분~오후 4시

[대출 규정]

회원 자격 초등학생 이상(지역주민 및 타 교인 가능)

대출 권수 1인 2책

대출 기간 2주 (1회 1주 연기 가능)

대출 연체 연체 일수만큼 대출 정지

분실/훼손 동일 도서 또는 정가로 배상

성공과 사명

정리 김나경 집사(10교구)

지난 9월 11일 화요일 10시 본당에서 진행된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특강에서 『자녀 운명, 부모가 바꾼다. M12』의 저자이신 민병진 원장님이 '성공과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다.

자녀의 사명과 재능을 찾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며 부모는 자녀와 취미생활을 공유함으로 서로 소통하는 가정을 가꾸어 가야하며, 세상적 성공관에서 빠져나와 사명적 가치관을 발견할 때 자녀가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성공에는 《세상적 성공, 행복한 성공, 성경적 성공》 이렇게 세가지가 있다.

- 세상적 성공은 나만 기쁜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최고의 조건으로 불행의 씨앗을 잉태하고 결과는 확실한 불행이다. 세상적 성공의 목표는 돈과 권력과 명예, 영향력인데 그것은 어둠의 속성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우리가 어둠을 돌아다닌다면 우리는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요한일서 1:5~6)

- 행복한 성공은 자신의 성공을 통해서 다른 이웃도 행복해야 하는 것이다. 행복한 직장과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데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행복한 성공을 한 것이다.

자신을 "자녀 교정 전문가"라고 소개하신 원장님은 엘리트 코스로 학업을 졸업하고 치과의사가 되었다. 3대 의사 집안임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았고 딸도 치과의사가 되어 부모를 만족시켰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주변을 돌아보니 자신도 가족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강사는 그 이유를 차분히 되짚어 보며 행복한 성공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자녀의 행복한 성공을 위하여 자녀가 갖추어야 될 조건 7가지

M1. 어릴 때부터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M2. 독서를 좋아해야 한다.
M3.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M4. 부지런해야 한다.
M5. 취미생활도 지혜롭게 해야 한다.
M6. 미래설계를 도와 줄 멘토가 있어야 한다.
M7. 초자연적인 도움이 있어야 한다.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 부모가 갖추어야 될 5가지 조건

M8. 자녀가 태어난 사명을 알아야 한다.
M9. 자녀의 재능을 찾아내고 극대화 한다.
M10. 자신의 꿈과 비전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본다.
M11. 가정이 화목해야 한다.
M12. 초자연적인 도움을 구해야 한다.

- 성경적 성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공이며 시편 1편에 잘 나와 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를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의 많은 인물 중 다니엘과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 대표적 인물들이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하고 세상적 성공을 뛰어 넘어 성경적 성공을 이루어 주셨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다.

성경적 성공을 이루기 위한 자녀교육의 시작은

1. 아이가 태어난 이유가 뭘까?(자녀의 사명),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무엇일까?(자녀의 재능)를 생각하며 찾아주는 것이다. 자녀의 재능은 자녀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슈바이처는 아버지가 목사이고 본인도 신학대학을 나왔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하였는데, 선교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목사자격만으론 부족하다고 여겨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생을 의사로서 선교사의 일을 감당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2. 가족이 화목해야 한다.

내 가족이 화목하려면 먼저 나와 내 부모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녀와의 관계도 결정되는 것이다. 언제나 사단은 나의 욕심대로 행하게 유혹한다. 그러나 부모 된 내가 평화와 사랑을 늘 유지하며, 끊임없는 영적전쟁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일상에서 하나씩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피하게 된다.

3. 초자연적 도움을 구해야 한다.

나의 도움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자녀와 함께 말씀과 기도로 사시사철 푸른 잎과 탐스러운 열매를 키워 나가야 한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사명은 같지 않다. 이제 세상적 성공을 향한 내 생각, 내 욕심을 내려놓고 자녀의 성경적 성공을 위해 힘써 보자!

어와나
개강 캠프 -
승리하는 사랑!

노흥수 목사
(유치부, 어와나 담당)

Awana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는 뜻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 중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의 약자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하게 자라나고 세워질 수 있도록 훈련받는 성경암송훈련 프로그램이며, 할렐루야교회 Awana는 5세부터 고등과정까지 개설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교회 어와나(Awana)는 매년 2학기를 1박 2일 개강캠프로 시작합니다. 올해도 8월 31일(금)~9월 1일(토)까지 가장 어린 연령대인 커비(5-6세)를 제외하고 약 100여 명의 클럽원들과 함께 '승리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개강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반갑게 만나서 방학 때 열심히 암송한 로마서 12장 9절-21절 말씀으로 게임도 하고 찬양과 예배도 드리는 귀한 캠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는 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높이높이 가장 높이

불어라~ 불어라~

말씀을 찾아랏!

친구야 반가워

오늘도 달려

신나는 찬양~♪

강남1사랑방을 소개합니다

박재찬 집사
(2교구)

강남1사랑방의 임시 사랑방장 박재찬입니다. 2교구에 소속된 저희 강남1사랑방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저희 사랑방의 매력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마음에 기쁘게 부탁을 들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사랑방에서 현재 활발히 교제를 나누고 있는 가정은 10가정 내외입니다. 보통 4가정에서 6가정 정도가 평균적으로 출석을 하는 저희 사랑방은, 매 주일 5시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친교를 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방원들이 많이 모이는 덕분에 사랑방 모임 도중 말씀의 나눔이 중간 중간 끊어지기 일쑤입니다. 넘어져 우는 아이, 화장실을 가겠다는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오지만, 그 혼란 속을 뚫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시 나누던 말씀을 깊이 있게 이어가는 능력이 가득한 사랑방입니다.

사실 강남1사랑방의 사랑방장님이신 한성호 집사님이 연구 년으로 올해 잠시 영국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더를 잃은 어린 양들이 다소 방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규섭 총무님이 중심을 잘 잡아주신 덕분에, 또 남은 방원들이 저희 사랑방에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덕분에 사랑방이 이어지게 되고, 지금은 잠시 제가 임시 사랑방장을 맡아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성호 집사님이 돌아오시게 되고, 다시 바통을 잘 넘겨드릴 수 있도록 방원들이 한마음으로 사랑방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라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상하시는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이 사실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있음이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정들이 주일 저녁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아이들이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이 기쁩니다. 함께 찬송을 하고 있으면 어느새 옆에 와서 찬양을 같이 부르기도 하고, 잠시 더 재미있는 것을 찾아 흩어지는 아이들일지언정 하나님 품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즐거이 예배하는 시간이라 사랑방 모임은 아이들에게도 매우 귀한 시간이 됩니다. 저희 강남1사랑방이 지금처럼 모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방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뉴웨이브 스쿨을 개강하며

안만기 목사
(뉴웨이브 공동체 디렉터)

2018년 새 공동체가 시작되고 조직과 시스템의 많은 변화에 따른 과도기를 지나 이제는 사역적인 안정기로 나아가고자 하는 뉴웨이브 공동체는 9월부터 뉴웨이브 스쿨을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청년과 청장년의 때를 보내는 젊은 신앙인들이 반드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들에 있어 뉴웨이브 목회팀은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가치관으로 무장한 청년들을 양육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가치관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뉴웨이브는 이 시대 젊은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갈 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은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인격, 성품, 그리고 정신이 담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성도에게 이 가치관은 세상을 이길 무기이고 세상에서 나를 지킬 방패이며 또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기독 젊은이들이 이 가치관의 정립(무기, 방패, 능력)이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 경쟁과 소유, 양육강식, 적자생존이라는 뒤틀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상처받고 절망하여 존재의 참된 가치마저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청년들이 그토록 상처받고 아픔을 호소하는 이유이며 동시에 세상이 병드는 이유입니다.

상처받는 성도, 상처주는 성도

기독교적 가치관이 통용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생기는 불이익과 거절감으로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는가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그대로 물들어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인해 실망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불신자들도 소리가 높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뒤틀린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을 병들게 하고 우리 모두를 피할 수 없는 갈등과 아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이어야 하나? Why does it have to be Jesus?

할렐루야교회의 뉴웨이브 공동체는 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유일한 치료약이 왜 예수님이어야 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환한 빛으로 그 영향력이 끼치게 될지를 기독 청년과 청장년들에게 가르치고 확인시킴으로써 이 믿음이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치료하는 강력한 능력이 됨을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는 데에 사역의 초점을 둡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려주고 동시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가치를 사는 존재이다

이와 같이 세상을 통치하는 가치관의 영역에서 벗어나 복음의 가치로 나의 정체성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 흘러가는 예수의 성품과 그 가치가 얼마나 큰 영향력으로 가정과 일상의 영역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지를 확인하고 그 중심에서 이미 뉴웨이브가 되어 있는 내 인생의 존귀한 소명과 가치를 감격하는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양육시키는 것을 사역의 목표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뉴웨이브 공동체 양육 커리큘럼 및 정기 사역

1년 차

상반기

7단계(청년1부) / 새생명반(청년2부) / 새소명반(담임목사님) / 북클럽(평신도 리더) / 기초교리반(최강용) / 성경공부(구약서) / 성경통독(이정은)

여름방학

성경의 빅픽처(최강용)

하반기

7단계(청년1부) / 구약개론(이정은) / 부부세미나(안만기) / 리더십(담임 목사님) / 직업과 소명(마승국) / 북클럽 지도자(최강용) / 북클럽 지도자(안만기) / HMDTS(이철규) / Xee(김사무엘)

2년 차

상반기

7단계(청년1부) / 새생명반(청년2부) / 새소명반(담임목사님) / 북클럽(평신도 리더) / 성경공부(신약서) / 성경통독(이정은)

여름방학

성경의 빅픽처(최강용)

하반기

7단계(청년1부) / 신약개론(이정은) / 부부세미나(안만기) / 리더십(담임 목사님) / 직업과 소명(마승국) / 북클럽 지도자(안만기) / HMDTS(이철규) / Xee(김사무엘) / 귀납법적 성경(최강용)

멘토링

관심별 멘토링

대학 생활 / 입시 준비 / 군 생활 / 유학 생활 / 직장 면접 / 직장 생활 / 결혼 준비 / 자녀 출산 / 글쓰기(기타) / 메이크 업(기타) / 공간 활용(기타)

관심영역별(연2회)

직업, 관심, 통일, 문화...

북 클럽

기독교 세계관 / 기독교 윤리관 / 소명 / 영성(예배, 기도, 찬양 등) / 리더십 / 기초 교리 / 신앙(성령, 은혜, 교회 등)

전체 세미나(외부강사/연 2회)

재정, 통일, 윤리, 성품...

2018년 뉴웨이브 스쿨 프로그램

입체적 성경읽기 / 최강용 목사

교재 『이야기 로마서』(진 에드워드)

목적 성경의 배경과 문맥을 이해하며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한다 (범위: 사도행전 19~27장, 고린도 후서, 로마서)

일터신앙 / 김사무엘 목사

교재 『일터신앙』(이효재)

목적 직장을 준비하고 있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 일터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성경적 일터 신앙을 정립해서 살아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택훈련 / 안만기 목사

교재 『선택훈련』(존 오트버그)

목적 많은 선택을 하는 청년 시절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선택을 하고 그 과정이 순종과 믿음의 선택이 되는 하늘의 가치를 나눈다.

성경적 부부관계 / 안만기 목사

교재 『성경적 부부관계』

목적 인생의 새출발을 시작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성경적인 부부관계와 가정관을 교육하여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한다.

구약개론 / 이정은 전도사

교재 『구약개론』

목적 연대기 순으로 구약성경을 관통하여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양육한다.

6기 HMDTS / 이철규 전도사

교재 주제별 강의예정

목적

1.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산다.
2.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다.
3. 세계선교를 향한 비전을 갖는다.

기간 : 2018.11.3 ~ 2019.2.16 (12주 강의) + 2019. 2월 중 (2주 선교)

시송(poem song) / 김명선 전도사

교재 『시송(poem song)』

시를 짓고, 송(song)을 만든다는 의미

목적 기독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시와 노래로 표현하게 하며 정서와 영적 건강을 도모한다.

- 작은 콘서트 12월 중 1회

제자도 / 마승국 전도사

교재 『제자도』(나를 따르라 : 디트리히 본회퍼)

목적 "진정 예수의 제자인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나누며 제자도를 향한 진정성 있는 도전을 한다.

55번째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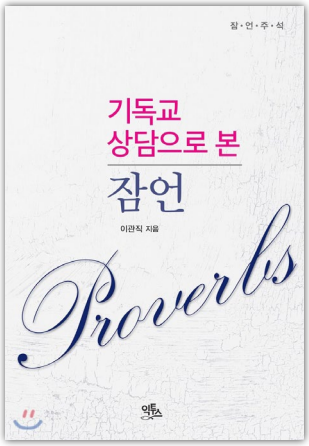
다시 예배하는 우리집 ^^*

유병혁 · 송혜민 성도(9교구)

예배하는 우리집의 원고를 부탁 받았을 때, 저의 건강상황이 좋지 않아 가정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있던 중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더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프다는 이유로 나태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지만, 다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예전처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전과 바뀐 모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찬양을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입니다. 아이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 집의 첫째 영록이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마냥 어리게만 보이던 영록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합니다. 아침에 조금 더 자고 싶단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스스로 큐티를 하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둘째 연경이는 7살입니다. 성경을 읽어주면 경청을 하고 같이 기도하자 하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고 마지막엔 제일 큰 소리로 아멘을 합니다. 예배시간에는 부끄러움이 많아 율동을 거의 안 하지만 집에서는 찬양팀을 해도 될 정도로 열심히 율동하며 찬양을 합니다.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온 땅이

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곡에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처럼 앞으로도 저희 가정이 구원되시고 기쁨되시고 소망되시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되길 소망합니다.

이달의 추천도서



기독교 상담으로 본 잠언

이관직, 익투스

할렐루야상담센터의 센터장 이관직 교수의 신간으로, 잠언을 목회상담학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현실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주는 말씀인 만큼, 성경을 삶의 현장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추천합니다. 목회상담학자의 시선으로 본 지혜의 말씀은, 자신의 내면과 일상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줄 것입니다. 31장으로 구성된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한 달 간 묵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을 함께 두고 읽으며 그 깊이와 이해의 폭을 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민수 목사(2교구)

• 이달의 추천도서는 2층 도서관과 서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와의 일대일 데이트

전지민 집사(7교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딸, 수아와 데이트

수아와 데이트를 시작한 것은 4월부터이다. 매주 목요일 2시~4시. 사랑하는 딸과의 데이트. 이 시간은 여유롭고 자유롭고 평안하다. 지난 3월 수아가 콜린성두드러기 판정을 받고 목요일 오후에 있었던 체육활동을 하지 않고 엄마와의 데이트를 제안했다. (열이 나거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생기면 몸의 체온이 올라 얼굴부터 다리까지 전신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체육을 잠시 쉬면 좋겠다고 판단하였다.) 두드러기뿐 아니라 동생이 태어난 후 동생에게 양보하였던 3년간의 시간, 엄마와의 1:1 상호작용 시간을 충분히 주고 싶었다. 어느 날은 맛있는 간식을 사 먹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손을 잡고 조잘조잘 수다를 떨며 산책을 하고, 그냥 집에서 쉬기도 하고, 탄천 구경과 징검다리도 건너고, 은행에 적금 통장을 만들러 가기도 하고,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은 차 안에서 라디오도 듣고, 캐리와 친구들도 함께 봐주고... 일부러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날그날 쫓기지 않는 시간 속 엄마와 딸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엄마가 생각하고 걱정했던 부족했을지 모를 사랑도 아이는 부족하지 않았다고 눈빛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말하고 사랑한다고 행복한 표정의 말로 표현합니다. 부족한 엄마의 삶 가운데 주님은 항상 함께하셔서 사랑으로 채우시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십니다. 수아에게 기다려주는 엄마, 참아주는 엄마, 인정해주는 엄마, 자책하지 않는 엄마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 무조건 사랑하되 무턱대고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마 7:17)

나의 사랑 어여쁜 딸 수아야! 네 이름의 의미대로 아름다운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삶 가운데 맺고, 풍성히 맺어 모든 이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고 베푸는 주님의 딸로 자라길 축복한다. 주님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기쁨, 아들 수호와의 데이트

만 35개월의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인 아들 수호는 지난 3월 어린이집에 가게 된 후 내 친구! 내 친구! 내 선생님!을 외치며 매일 아침 뒤돌아볼 생각도 없이 달린다. 달리는 아들 녀석의 뒷모습은 기특하지만 서운하기도 하다. 엄마와의 시간이 그리도 지루했니? 심심했니? 묻고 싶어진다. 만족이란 없구나 싶다. 적응을 못하면, 아침마다 울음바다였다면 또 감사하다 했겠는가? 지금의 수호의 모습에 너무 감사하다. 어린이집에 가고 나니 수호와 단둘이 시간을 내기가 더 어려워졌다. 누나보다 늦은 하원 시간, 일찍 데려오려면 낮잠 시간... 수호와 나에게 허락된 귀한 시간이 있었으니 어린이집 등원 시간이다. 누나를 보내고 나면 40~50분의 여유로운 시간이 거의 매일 주어진다. 날이 시원해지니 어린이집으로 걸어서 가는 길은 (사실 그냥 걸으면 15분이면 충분하다) 탄천이라는 좋은 탐험지가 있다. 남자아이라 그런지 탐험, 출동이란 말만 붙이면 언제나 들뜨고 의욕이 충만해진다. 물고기 탐험, 곤충 탐험, 식물 탐험, 징검다리 아침 등원 길은 흥미진진한 아들과의 데이트코스가 된다. 즐거움, 경쾌함, 활발, 쿨함의 대명사 수호는 아침마다 행복한 데이트를 즐긴다. 하지만 세 달 동안의 어린이집 생활은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은연중에 스트레스와 첫 사회생활의 어려움이 있는지 엄마! 엄마! 엄마쟁이 모습이 보인다. 누나에게 못 채운 시간을 채워주는 동안 수호에게도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이 필요했는데 활발하고 경쾌하게 지내는 듯 보이는 겉모습에 치중했던 것 같다. 두 아이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는 사랑과 관심, 보살핌을 두 아이에게 적절하게 주기를 바라실 것이다. 상남자다운 수호에게도 엄마와의 시간을 더욱 채워주길 힘쓰는 엄마가 되길 기도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시1:3)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아들 수호야! 수호의 이름의 의미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그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받은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길 축복한다. 주님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임목회자 수련회

9월 3, 4일(1박 2일)에 대부도 인근에서 전임목회자 수련회가 있었다. '어부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 목회자들은 교회의 비전을 새롭게 점검하며 은혜를 나누었고, 서로 간의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중국어 예배부 초청 전도잔치

중국어 예배부는 9월 15일 중국유학생들을 초청하여 조이가든에서 바베큐 파티를 열었다. 단국대, 가천대에서 40여 명의 학생들이 교회의 따뜻한 사랑을 맛보았고 앞으로 주일에 만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다.

핸드벨팀, 케언즈에서 울린 주기도문

할렐루야교회 핸드벨팀은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호주 케언즈 세계대회에 참가한 뒤 4개 도시(시드니, 뉴캐슬, 브리즈번, 케언즈)에서 한인교회 연주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 이 대회는 순위를 결정하는 대회가 아니라 발표하는 대회로 'Under the sea'와 'The Lord's Prayer' 두 곡을 연주하였다. 연주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연주 여행 또한 그곳 교인 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할렐루야상담센터 개원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 오던 할렐루야상담센터를 야탑동 로잔티움파크 402호에 개원하였습니다. 지난 9월 16일 주일 교회에서 김승욱 담임목사님과 김상복 원로목사님을 모시고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개원 감사예배를 드린 후, 담임목사님과 센터장 이관직 박사님, 각 교구목사님들과 총무단 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며 힘차고 복된 출발을 선포하였습니다. 할렐루야상담센터는 할렐루야 소속 성도는 물론 타 교회 성도, 지역주민 등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삶의 도중에 직면하게 되는 내면의 상처와 아픔, 관계의 깨어짐 등으로 발생하는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전 인격적인 영역에서 개인과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출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 교회성도나 지역 주민에게도 시중 타 상담센터에 비해 절반에 가까운 상담료만 부담하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소지하신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곧바로 연결됩니다. 앞으로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하셔서,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해지고, 은혜가 충만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참 소망되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간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 50번길 42
(야탑동 220-1) 로잔티움파크 402호

홈페이지 http://counseling.hcc.or.kr

전화번호 031-701-1113

이학모 집사(치유공동체 서기)

2018 Blessing Summit

2018
10
26

금요일 오후 8시
할렐루야교회 본당

GUEST | 기적을 노래하는
영화 '더 테너'의 주인공
성악가 **배재철**

행복한 동행

2018 블레싱서밋에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친구, 이웃을
초대하세요.

성경퍼즐을 출제하면서...

김정진 목사
(7교구 담당)

어느 날 할렐루야신문에서 '성경퍼즐을 출제하시던 분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셔서 성경퍼즐을 없애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혹시 맡아 줄 수 있느냐?'고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임해 온 지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저는 '아, 해야 하나 보다' 하는 생각에 앞뒤도 안 보고 덥석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격언 가운데 'Ignorance is bold'(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격언이 있죠? 처음 1년은 요령이 없었기에 성경퍼즐을 완성하는데 며칠이 꼬박 걸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었기에 문제를 출제 하는데 어려움 없이,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 성경퍼즐 문제를 출제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서 하루면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점점 줄어들다보니 때로는 조금 치사한(?) 문제를 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여전히 부족함이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사 집사님들로부터 "목사님, 성경퍼즐 독자층이 두텁습니다.", "성경퍼즐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될 때에는 보람도 느끼며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성경퍼즐 출제자로서 이 문제를 통하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는 데,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다음 몇 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1. 가족들이 함께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나와 있는 성경 장을 꼭 찾아서 읽으면서 풀어주세요. 굳이 '장'만 포함시키고 '절'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그 장의 내용을 좀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3. 단순하게 답을 맞히기보다는 그 단어가 나오는 사건에 내용을 이해하면서 풀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 성경퍼즐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은 이제 참 귀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저 역시 몰랐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문제를 내다가 은혜를 받을 때도 있답니다.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은혜가 성경퍼즐 독자 분들께도 있기를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누가복음 1:37)

예수님의 그림책

글/그림 안주미 집사(신문위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로마서 14:18)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손에 기쁨이 가득해요!

▶가로 문제

② 아하수에로 왕의 일곱 고관 중 한 사람(에1).
③ 이새의 세 번째 아들이며 다윗의 형(삼상17)
⑤ 이번 10월 3일에 있는 '제7회 북한과 통일을 위한 연합기도 '원코리아연합기도'의 주제는 '○○○ ○○'이다.
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이라는 뜻(사7,마1)으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메시아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성취된 이름이다.
⑩ 바사 왕 아하수에로의 셋째 아들로서 자신의 부친을 암살한 아르파타나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다. 그는 두 번째 유다인 귀환(에스라의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하였다(스7,8).
⑫ 시므온 지파 사람으로 암미훗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시므온 지파의 대표이다(민34).
⑭ '넓은 장소'라는 뜻으로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분쟁을 피해 그랄 골짜기에 팠던 세 번째 우물 이름(창26)으로 이삭이 이전에 팠던 두 우물과 달리 이 우물에서는 더 이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⑮ 수리아 해안 두로에서 아르밧까지 이르러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뻗어 있는 두 개의 산맥이 있는 곳으로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기업에 속한 곳이었다(신1,수1).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솔로몬 시대 외에는(수11,12,13,왕상9,대하8) 그 땅의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다(삿3). 이곳은 백향목(삿9), 잣나무(왕하19), 백단목(대하2) 등으로 유명하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과 자신의 궁전 건설을 위해 이곳의 목재를 사용했다(왕상5,7).
⑰ 우레와 태풍을 주관하는 앗수르의 우상으로 태풍의 신 '하닷'의 별칭이기도 하다. 메소포타미아, 수리아, 팔레스타인에서 숭배했으며 아람에서는 '풍요의 신'으로 숭배되었다. 소의 뿔 모양의 투구와 번개 모양의 창을 가지고 있다. 아람 장군 나아만과 다메섹 왕이 숭배했던 신이다(왕하5).
⑲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오른 산(창22). 브엘세바에서 약 80㎞에 위치해 있으며 역대하 3장을 따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립한 예루살렘의 북동편 언덕과 동일한 곳으로 보인다(대하3).

▼세로 문제

①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로서 그는 성령을 따라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고 예언했으며(행11,글라우디오 황제 때 성취) 또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잡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예언하기도 했다(행21).
④ '하나님의 군대들'(창32)이라는 뜻으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것에서 유래된 지명이다(창32). 이곳은 원래 갓 지파의 땅이었으나(수 13), 길르앗에 있는 라못과 함께 레위 지파의 므라리 자손에게 할당되었다(수21,대상6).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후 잠시 동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국의 임시 수도가 되기도 했고(삼하2),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이곳으로 피신하기도 했다(삼하17,19). 그리고 솔로몬 때는 12행정 구역 중 하나로 잇도의 아들 아하나답이 이곳의 지방 관장으로 있었다(왕상4).
⑥ 유다 지파 경계에 위치한 단 지파의 성읍으로(수15,19) 벧세메스 가까이(북서쪽 약5㎞ 지점) 위치했다. 삼손 당시에는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으며 삼손은 이 지역 출신 여자와 결혼했으나 결혼 피로연 때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비밀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하여 그녀를 버렸다(삿14). 웃시야 왕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곳을 다시 유다 땅에 복속시켰다(대하28).
⑦ 갓 지파의 영토로(신4) 후에 도피성으로 지정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다(수20,12,왕상4). '길르앗 ○○'. 이곳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연합군이 아람 군대와 전쟁한 곳으로도 유명하다(왕상22).
⑨ 베다니 출신으로 마리아의 언니이며 나사로의 누이이다(눅10,요11).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가정을 친히 방문하기도 하셨으며 그녀는 늘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사람으로 보인다. 특히 그녀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부활을 분명하게 고백하였다(눅10,요11).
⑩ 로마 초대황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Gaius Julius Caesar Octavianus)에게 로마의 원로원은 이 칭호를 수여한다. 이 사람은 군인뿐 아니라 정치가로도 탁월한 업적을 남겼으며 소위 '로마의 평화'라는 전무후무한 번영 시대를 이끌었다. 그는 예수님 탄생 시기에 세금 징수를 위해 로마 전역에 호적을 명령했던 인물이다(눅2).
⑪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이자 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을 지도한 선지자(삼상1,7,대상6)이며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은 제사장의 사명을 함께 감당했다. 그는 백성을 미스바에 소집하여 '이방신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외쳤고(삼상7) 이스라엘 왕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부어 세우기도 했다(삼상10,16). 성경은 '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다'고 표현한다(시99).
⑬ '높은 곳의 하나님'라는 뜻으로 모압 고지대의 한 성읍이다(민32). 헤스본과 가까이 있어 늘 함께 언급된다(사15,16,렘48).
⑯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있는 베냐민 지파 마을로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첫 남편)에게로 돌아가기 위해 발디엘(둘째 남편)과 작별한 곳이며(삼하3), 시므이가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도주하던 다윗 일행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한 곳이기도 하다(삼하16,왕상2). 다윗의 충신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압살롬이 장악한 예루살렘을 정탐하다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우물에 몸을 숨겼던 장소이다(삼하17).
⑱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선조 중 한 사람으로 가르쳐 주며 조부로 비춰준다(눅3).

출제 김정진 목사(7교구 담당)

※ 참고: 라이프성경사전(생명의 말씀사), 한국컴퓨터선교회(http://kcm.kr), 성경지명사전(한국성서지리연구원) 등

-10월-
십자퍼즐

성경일독과 함께하는 Cross Words!

아래 퍼즐의 정답과 이름, 교구 및 연락처를 적어서 점선을 따라 잘라서 매월 17일까지 신문사(221호) 우편함에 넣어 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정답과 당첨자는 다음 호에서 알려드려요.

		③	④			⑥		
①			⑤				⑦	
②								
			⑧	⑨		⑩		
						⑪		
⑮		⑯						
						⑫	⑬	
⑰				⑱				
			⑲				⑭	

응모자 : 교구 및 소속 :

전화번호 :

지난 호 정답 및 당첨자

				호	르	마		
				심				
맹	진	사	댁	경	사	났	네	
		가			아		압	돈
아	사	랴			난		볼	
레			느	디	님		리	노
오		삼		도				아
바	디	매	오			헤	르	몬
고				이	세	벨		

정안나(고등부, 6361)
김명희(1교구, 3479)
남상신(1교구, 7502)
조영희(4교구, 5732)
원찬영(4교구, 2219)
강금자(5교구, 3881)
문수환(6교구, 3231)
박소연(7교구, 6361)
유영미(7교구, 6246)
서명순(9교구, 6477)

※주일 12시 30분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신문사(221호)에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가족입니다~^^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등록하신 분

"섬기는 기쁨이란 "

섬긴다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신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어 받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
대상에 따라 약간의 의미 차이는 있었습니다.

신에게는 봉사하거나(serve), 예배하며(worship)
부모나 이웃들은 보살펴야(take care of) 하고,
남편이나 아내에게는 순종하거나(obedient), 헌신하는(devote),

이 모든 행위와 마음을 우리는
'섬긴다'라고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원대하며 의미심장하고 큰일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행하고 있으며,
특히 매주 주일에는 좀 더 강력한
섬김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웃과 나눈 작은 미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봉사의 손길,
누군가를 위해 두 손 모아 올렸던 기도의 음성.

이 모든 것들은 섬김의 기쁨이 되어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올 것입니다.

글/그림 한정훈 집사(신문위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44-45)